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안
채택

3면

바이든과 네타냐후의
화음 속 불협화음

4~5면

이스라엘의
식민 정착자 지배의
위기

6~7면

총선 앞두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16, 15면

모스크바
공연장 공격

5면

여성과
이슬람
8~11면



미국, 구속력 없는

안보리 결의안에도 기권

**라파흐 공격
반대한다면서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한다**

관련 기사 3, 4면

미국, 안보리에 “휴전” 결의안 제출?

휴전 지지한다면서 휴전 요구하지 않는 위선

미국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대한 지지를 은폐하고자, “휴전”이라는 표현을 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은 휴전을 언급한 결의안에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몇 달째 그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 국가의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승인하는 것이었다.

지난 22일 금요일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휴전을 요구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달래면서, 인종 학살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이스라엘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결의안은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6주간의 교전 중지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것은 6주가 지나면 팔레스타인인들을 다시 공격할 여지를 이스라엘에 주는 것이다.

그 결의안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언급하면서도 그 고통의 원인인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사실 그 결의안은 휴전 촉구 결의안 이전혀 아니었다.

그 결의안은 저항 세력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포로 석방을 조건으로 내건다. 그 결의안은 “남은 인질의 전원 석방과 결부된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편드는 인종 학살 공범 바이든

이스라엘은 그 결의안을 지지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길라드 에르단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결의안이 통과됐더라면 유엔이 도덕성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에르단은 “하마스는 괴물들을 규탄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칭찬하기도 했다.

이어서 에르단은 팔레스타인인 130만 명이 피란해 있는 라파흐에 지상군 공격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불길은 또다시 커지고 번질 것이다. 라파흐에서 작전을 벌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 항구적 휴전으로 가는 길은 라파흐로 통한다.”

팔레스타인인 분석가 누르 오데흐는 미국이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이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 결의안은 휴전 촉구 결의안이라고 홍보됐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의 문장들은 향후 이

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할 위해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처럼 읽힙니다.

“자명한 국제법 위반을 보아 넘기는 이런 표현들은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차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러시아와 함께 알제리도 미국의 결의안에 반대 투표했다. 가이아나는 기권했다. 11개국이 찬성 투표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이사국 10개국이 대체 결의안을 작성했다. 그 결의안은 라마단 기간에 즉각 교전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들은 그 결의안에 지지를 표했다. 그 결의안은 뉴욕 현지 시각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표결에 부쳐진다.[3월 25일 해당 결의안이 채택됐다 — 역자.](관련 기사 3면)

알자지라 특파원 가브리엘 엘리존도는 이렇게 보도했다. “문구가 핵심입니다. 이 결의안은 라마단 동안의 ‘즉각 교전 중지를 촉구’합니다. 동상이몽의 여지도,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극히 분명합니다.”

미국은 경쟁 제국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평화 협상을 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친구 행세를 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제국주의 ‘경비견’이다. 그리고 미국의 손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대사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헨젤은 이번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다지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미국은 무기와 그 밖의 지원의 핵심 제공자로서 이스라엘에 커다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천에서는 그런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 대신 안보리에서 이런 발언이나 결의안을 내놓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바이든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압력을 받고 있다. 영국 전쟁저지연합은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은 11월 대선을 의식한 바이든의 정치적 술수임이 명백하다.

“바이든과 서방 위정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에 털끝만치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이미 지난해 10월에 휴전을 촉구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포괄적·즉각적·항구적 휴전과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 전면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모든 단체와 개인들에게 3월 30일 토요일에 있을 대규모 행진을 건설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것을 호소한다.”

영국 전쟁저지연합은 노동자들에게 5월 1일 일터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하루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 정부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키우자.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US said it supports a ceasefire in Gaza—but its UN resolution didn't demand one' (2024. 3. 22) / 번역 김준호

예루살렘 현지 팔레스타인인이 말한다

이스라엘이 알아크사 사원을 유린하고 있다

알아크사 사원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속하는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있다. 무슬림에게 그곳은 가장 신성한 성지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끈질긴 저항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국가는 알아크사 사원을 침탈해 기도를 올리려는 무슬림들을 거듭 살해해 왔다. 이스라엘은 신도들의 사원 경내 진입을 금지하고 사원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을 폈다.

올드시티에서 태어나 지금도 그 인근에 사는 한 팔레스타인인이 <소셜리스트 워커>와 얘기를 나눴다. 이스라엘

이 알아크사 사원에 관해 펼치는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아랍인을 몰아내려는 수단 중 하나라고 그는 설명했다.

“수천 년 동안 무슬림·유대인·기독교인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1920년] 영국의 위임통치와 이후 시온주의자들의 점령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는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인 약 18만 명이 올드시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인 불법 정착자 약 26만 명이 동(東)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집이 파괴당하고 강제 퇴거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인들이 시장 거리한 곳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랍인들을 소수 집단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는 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거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예루살렘은 — 알아크사 사원은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다 — 분단되고 여러 조각으로 쪼개졌다.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에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살던 곳에서 쫓아낸 일]) 이후 이스라엘 국가는 예루살렘 서부를 점령했다. 예루살렘 동부는 요르단이 차지했다.

1967년 중동 전쟁(이른바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과 나머지 서안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지만, 올드시티가 있는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일

▶ 3면으로 이어짐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안 채택

라파흐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에 이데올로기적 타격

3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사국 15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4개국이 찬성했다.

이스라엘에 불리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만큼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고립됐음을 보여 주는 일이다.

이번 전쟁 중 안보리 휴전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미국은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도와 왔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스라엘을 비호하는 한편으로, 휴전을 바라는 전 세계 사람들의 분노도 달래야 했을 것이다.

앞서 3월 22일 미국이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은 휴전을 요구하지 않는 기만적인 제안이었다(관련 기사 2면).

라마단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알제리 등(한국도 포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이 내놓은 것으로, ‘라마단 기간 즉각 휴전’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격을 규탄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걸림돌 일체 해제도 요구했다.



3월 25일 안보리에서 유일하게 기권에 손든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에 불리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삼고, 피란민 140만여 명이 몰려 있는 라파흐에 지상군 공격을 실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길 라드 에르단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비난했다. 반면 하마스 측은 유엔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그렇지만 이번 안보리 휴전 결의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막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올해 라마단은 4월 9일 끝난다. 설령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도 10여 일 남짓의 일시적 교전 중지에 그치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적인 휴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가해질 제재 조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안보리의 휴전 결의를 따르지 않아도 유엔은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번 결의에 “구속력이 없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비상임이사국들은 사전에 미국 측과 내용을 조율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내용이 완화된 것이다.

거부권

이스라엘은 자국에 불리한 유엔 결의를 술하게 무시해 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또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대이스라엘] 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 관련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령 2016년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미국의 기권 덕분에 채택된 바 있다. 물론 이스라엘은 정착촌 건설을 강행했고, 미국은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군 라파흐 투입이 커다란 역풍을 맞을까 봐 염려하지만, 이스라엘을 비호하며 무기를 계속 대 주는 데에선 흔들림이 없다. 강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패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김영익

▶ 2면에서 이어짐

부로 인정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서(西)예루살렘 전체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팔레스타인인은 그런 경계선과 장벽은 전혀 합의된 바 없으며 이스라엘 국가는 이를 계속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는 올드시티를 에워싼 장벽 동편에서 고작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삽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 신분증을 갖고 있죠.”

“하지만 올드시티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받은 신분증은 청색 신분증이에요. 올드시티 주변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색깔이 다른 겁니다.”

“신분증 색깔은 중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1991년 경계선에 검문소를

세운 후에는 더 중요해졌죠.

“지난해 10월 7일 이전에는 청색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올드시티에 갈아크사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더 쉬웠어요.

“녹색 신분증 소지자들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올드시티 방문] 신청을 해야 해요. 하지만 사원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온통 난장판이 됐어요. 제 아들은 예루살렘 거주자 신분인데도 알아크사 사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심지어 올드시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 아들이 어찌어찌 올드시티에 들어간다 해도 알아크사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폭력과 위협은 언제나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옥보이고 겁박하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침탈은 저항도 낳았다.

제2차 인티파다는 이스라엘 우익 정당 리쿠드당의 지도자 아리엘 샤론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도발하려고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한 후에 벌어졌다.

샤론이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할 당시 샤론의 경호대가 팔레스타인인 일곱 명을 살해했다.

제2차 인티파다는 5년 넘게 이어졌고, 이스라엘 국가는 이 항쟁을 바로 분쇄하지 못하고 쪼들렸다.

지난주에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하

마스는 이스라엘의 알아크사 봉쇄를 끝장내자고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호소했다.

하마스는 성명에 이렇게 썼다. “서안지구 주민들이 알아크사 사원을 위해 점령지에 맞서 저항해 달라고 호소한다.”

보통 라마단 첫 금요일에는 서안지구 전역에서 무슬림 신도 수만 명이 알아크사 사원으로 순례한다.

그러나 이번 라마단 첫 금요일[3월 15일]에는 이스라엘군이 이른 아침부터 도로를 봉쇄했다.

알아크사 사원을 둘러싼 전투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저항의 초점이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Israel's brutal crackdown on a Palestinian mosque' (2024. 3. 19) / 번역 김준호

바이든과 네타냐후의 화음 속 불협화음

둘의 갈등은 하마스 제거 방안을 둘러싼 것이다

최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 보도가 많다.

바이든과 네타냐후가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월 25일(이하 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라마단 기간 즉각 휴전' 결의안을 표결할 때 미국은 기권했다(3면에 실린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안 채택: 라파흐 지상전 앞둔 이스라엘에 이데올로기적 타격'을 보시오).

그러자 네타냐후는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던 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애초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의 (라파흐 지상전이 아닌) 대안적 하마스 제거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 고위 당국자들을 미국에 보낼 예정이었다.

그전부터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전후 처리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바이든은 네타냐후가 라파흐 지상전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을 더욱 고립시키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 달 만에 이뤄진 이스라엘 지도자와의 통화에서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의 라파흐 지상전 수행 계획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라파흐는 이스라엘군이 점령하지 못한 가자지구 남부의 마지막 인구 밀집 지역이다."(3월 19일 자)

라파흐

라파흐는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봉쇄하고 있지만 말이다.

가자지구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도 대부분 라파흐를 통과한다.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하기 전 라파흐 인구는 약 25만 명이었다. 지금은 140만 명이 밀집해 있는 가자지구 최대 피란민 대피소가 됐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해도 이들에게는 탈출로가 없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라파흐 지상전 계획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라파흐 지상전 과정에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등 서방)이 역풍을 맞을까 봐 노심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 중단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결코 취하지 않는다

조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팔레스타인인 3만 2226명을 학살했다(3월 24일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지만, 그로 인해 '정당방위'라는 이스라엘의 전쟁 합리화 논리는 산산이 깨졌다.

그래서 미국은 민간인 '보호' 계획을 먼저 제시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던 것이다.

미국은 네타냐후가 라파흐의 피란민들을 소개한 뒤 하마스를 섬멸하는 작전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이렇듯 바이든(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럽연합)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과 인종 학살 종식에 관심이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기아 작전으로 영유아가 굶어죽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병원들을 무참하게 공격해도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편든다.

네타냐후가 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취소했지만, 미국은 현재 방미 중인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와 하마스 제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요컨대,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하마스 제거 방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굳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의 중동 통제 유지 전략과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충돌할 때도 있었다.

1996년,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당시 신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처음 만난 뒤 이렇게 소리쳤다. "빌 어떡을, 여기서 초강대국은 누구입니까?"(<파이낸셜 타임스> 3월 19일 자). 클린턴은 네타냐후의 오만한 태도에 격분했다.

1991년에도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1세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강행에 제동을 걸려고 대(對)이스라엘 차관 보증을 중단했다. 당시 이스라엘 총리는 이츠하크 샤미르였고 네타냐후는 외무차관이었다.

부시 1세 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이 1991년 1~2월 대이라크 걸프 전쟁 승리 후 미국이 구축하려는 중동 질서에 차질을 줄까 봐 차관 보증을 중단했던 것이다. 결국 샤미르는 권좌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 통제력이 약화돼 온 만큼 이스라엘의 구실이 미국에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 지대인 중동에서 단지 미국의 우방 정도가 아니다. 미국의 중동 지배를 떠받치는 "대들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

트도 대들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대들보는 이스라엘이다.

미국 권력자들의 마음에 꼭 차지 않더라도 이 대들보가 무너지면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 구축해 온 중동 지배 질서가 와르르 붕괴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두고 언론들이 "바이든이 네타냐후에게 뺨을 맞고 있다"고만 보도하는 것은 피상적이다(이 말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반 홀렌이 했다).

결국 미국 등 서방이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웃 아랍 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력 우위는 불가능하다.

지금도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의 무기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스라엘은 미국 등 서방의 더 광범한 제국주의적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

시간 벌기

미국 등 서방의 권력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21세기에 자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인도적 재앙이 아니다.

서방 권력자들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서방 정부들까지 위협할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3월 14일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가 네타냐후를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척 슈머는 민주당의 유대계 최고위원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공격 직후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등 이스라엘 정부의 강력한 동맹자로 자처하는 자다. 그런 자가 네타냐후 내각의 교체를 촉구했다.

"네타냐후의 연립 정부는 10월 7일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더는 부합하지 않는다.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스라엘인들은 그들 정부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 5면으로 이어짐

모스크바 공연장 공격에 대한 서방의 이중잣대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공격에 대한 반응은 세계 최대 강대국들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훤히 드러냈다.

3월 22일 총을 든 남성들이 공연장 ‘크로커스 시티홀’에 난입해 130명 넘게 살해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 연계 단체 아이시스-K가 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

아이시스-K는 극렬 종파 세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이 아시아·중동·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을 지배하려 드는 과정에서 성장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습격자들은 공연장에 난입해 관중에 총을 난사했고 건물에 불도 질렀다.

러시아 정부는 총격범 네 명을 모두 체포했고 이번 주에 공개 법정에 세웠다. 총격범들을 고문한 흔적을 드러내기를 개의치 않았다.

보안군은 총격범 한 명의 귀를 잘랐다. 다른 한 명은 휠체어에 실려 눈을 못 뜨는 채로 법정에 나왔다.

이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이시스 측에서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데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후 푸틴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이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푸틴은 우크라이나 개입설을 주장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측”이 국경에 “탈출구를 마련”했고 총격범들이 [체포 당시] 그쪽으로 도망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연설에서 “테러리스트 배후 세력은 모조리 징벌하겠다”고 선언했다. 푸틴은 이 공격을 발미 삼아 러시아-서방 제국주의의 간 대리전이 돼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동원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 또, 푸틴은 러시아 국내에서도 탄압을 강화할 것이다.

서방 언론은 푸틴에게 이번 총격을



푸틴이 이번 사건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이 9·11 공격을 이용해 이라크 전쟁을 벌였던 방식과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서방은 자기 영토에 비슷한 공격이 벌어지면 정확히 그렇게 활용해 왔다.

9·11 공격을 이용해 미국 전 대통령 조지 부시와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과 더 광범한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했던 것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9·11 공격을 이용해 서방은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적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공포를 부추겼고, 국내외에서 무슬림을 악마화하기 위해 이슬람 혐오를 부추겼다.

위선

그러나 공격 대상이 러시아나 서방이냐에 따라서 서방의 공식 [정치권의] 반응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2015년 1월 알카에다가 프랑스 언론사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을 공격하자, 서방

지배계급 정치인들은 프랑스에 대한 지지를 표하러 파리로 몰려들었다.

그런 정치인 중에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해 손에 피가 흥건한 전쟁광들도 있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 극장과 국립축구경기장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총격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너 나 할 것 없이 “공식적” 추도 물결이 일었다.

반면 지금 서방은 러시아를 제압하고 싶은 욕망이 추도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아이시스 자체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복적 개입이 만든 악순환의 산물이다.

미국·영국이 주도해 이라크를 파괴하고 종파 갈등을 부추긴 탓에 아이시스 같은 단체들이 성장할 기반이 형성됐다.

그런 단체들은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정치적 공백을 채우는 데에 한몫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가 무슬림을 공격해 온 역사도 이번 모스크바 총격에 한

몫했을 것이다.

남아시아연구소 소장 마이클 쿠젤만은 아이시스-K가 러시아의 무슬림 억압 사례들을 선전에 끌어다 쓰고 있다고 알자리라에 전했다.

쿠젤만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러시아가 체첸에서 저지른 일”과 같은 “러시아의 대외 정책 자체가 아이시스에게는 거대한 공격 신호”와 다름없다고 했다.

인구 다수가 무슬림이고 현재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체첸에서 러시아 국가는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다.

1990년대에 체첸이 독립을 선언한 후 러시아는 체첸을 상대로 유혈 남장한 식민 전쟁을 벌였다. 이런 학살을 가능케 하려고 러시아 국가는 오랫동안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체첸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그렸고, 체첸인에게 “내부의 적”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 전쟁 이후, 체첸 운동 세력 일부는 푸틴과 손잡았고, 현재 체첸인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병력으로 동원하고 있다.

체첸 운동 세력 중에는 아이시스 같은 단체들로 이끌린 곳도 있었다.

지난주 모스크바 공격의 배후는 끝내 규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방은 그런 참사를 얼마든지 부추기기도 남을 작자들이다.

이는 푸틴도 마찬가지다. 푸틴 정부는 132명이 사망한 2002년 모스크바 극장 공격을 [제2차 체첸 전쟁에] 이용했고, 어쩌면 그 비극을 야기한 당사자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모스크바 공격은 비극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이 제국주의적 폭력을 더한층 키우는 데에 이용되게 되서는 안 된다.

토머스 포스터

출처 Thomas Foster, 'West's double standards over attack on Moscow concert' (2024. 3. 25) / 번역 김준호

▶ 4면에서 이어짐

“네타냐후 총리의 현 연정이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면 … 미국은 현재의 노선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스라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이든은 척 슈머를 지지했다. “그는 좋은 연설을 했다. 많은 미국인이 공유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스라엘 정부는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바이든은 “입지를 흔들려서는 아니”라며 네타냐후를 달랬다.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행위와 다소 거리를 두려 한다.

이를 위해 “언론 플레이”도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얼마 전에 미국이 “이르면 몇 주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은 낙하산으로 식량을 가자

지구에 공중 투하하고 인도적 해상 통로를 연다.

그러나 무기 제공 중단 등 미국이 이스라엘에 실질적인 압력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3월 22일) 유엔 안보리에 ‘휴전’ 결의안을 제출한 것도 이스라엘에 실질적 압력을 가하지 않으려는 기만책이었다. 이 결의안은 휴전이라는 표현만 썼을 뿐, 실제로는 휴전을 촉구

하지 않았다.(2면에 실린 ‘미국, 안보리에 “휴전” 결의안 제출? 휴전 지지한다면서 휴전 요구하지 않는 위선’을 보시오.)

바이든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걱정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벌려 한다.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사그라들기를 바란다. 그러면 7개월 뒤에 있을 대선에서 재선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김인식

시온주의의 창시자 중 하나인 테오도르 헤르츨은 이렇게 썼다. “낡은 건물을 새것으로 대체하길 바란다면, 새 것을 건설하기 전에 낡은 것을 부숴야 한다.”

이 말에서 요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 지역의 사람들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죽여 없애려는 말살주의의 논리이고, 정착자 식민주의는 이런 말살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 때문에 정착자 식민주의는 영국의 인도 지배 같은 다른 형태의 식민 체제와 구별된다.

영국의 인도 지배는 끔찍한 참상을 불러왔다. 그러나 정복지에서 토착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제국주의 모국에서 커다란 무리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새로운 식민지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정착자 식민주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대규모로 이주시켜 원주민의 땅을 영구적으로 차지하려 든다.

확실히 대부분의 시온주의 선구자들은 이스라엘을 건국하려면 팔레스타인인들을 단지 하층민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믿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되는 다비드 벵구리온은 1937년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우리는 아랍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위력을 써야만 한다면(이는 아랍인들에게서 네게브나 트랜스요르단을 빼앗기 위한 것보다는 그곳에 정착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가진 위력으로 이를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사명은 살인적일 수밖에 없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목숨이 위협받지 않는 한 떠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1948년 나크바가 본질적으로 대규모 폭력과 살육이었던 이유다.

작가 패트릭 울프는 이것이 “원주민 말살주의의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원주민 말살

원주민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존재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지우기 위한 작업이 수반됐다. 팔레스타인 강탈은 팔레스타인이 “땅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자 없는 땅”이라는 신화를 기초로 자행됐다.

1901년에 이스라엘 쟁월이라는 이가 처음 말했다고 전해지는 이 문구는 여전히 시온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이룬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제거한다는 목표는 시온주의 내부 오랜 논쟁의 산물이



이스라엘의 식민 정착자 지배의 위기

정착자 식민주의에 대한 두 번째 분석 글에서 찰리 킴버는 이스라엘이 이 통상적 ‘정착자 식민주의’ 정의에 들어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시온주의의 목표를 일부 좌절시켰는지 살펴본다. 킴버의 첫 번째 분석 글은 본지 495호(‘정착자 식민 지배의 잔혹한 역사’)에서 볼 수 있다.

였다.

에드몽 드 로스차일드 남작 같은 시온주의의 일부 지도적 인물들이 바란 것은 비교적 소수의 유대인 지주들이 팔레스타인인 아랍 노동자 대다수를 착취하는 나라였다.

이스라엘이 이 모델을 따랐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알제리와 유사할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는 시온주의 노동자 운동에서 나왔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아랍 노동자들이 유대인 노동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아랍 노동자를 고용한 유대인 자본가는 누구나 시온주의 대의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세기 초부터 보여 주고 있었던 것처럼, 착취당하는 식민지 사람들은 경제

와 국가를 불안정하게 하는 강력한 잠재 요소일 수도 있었다.

만약 식민지 주민들이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면 파업을 벌이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 내 노동당 시온주의 경향에 따르면 “청소된” 땅 위에 유대인만의 단독 경제를 꾸려 아랍인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

1920년에 설립된 ‘이스라엘 히브리 노동자 총연맹’(히스타드루트)이라는 “노동조합”이 이 프로젝트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 히스타드루트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아랍인을 몰아냈다. 히스타드루트는 창립 대회에서 유대인의 국가에 “유대인 노동자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결정했다.

벵구리온에 이어 주요 시온주의 “좌

배제되고 버려지기를 거부하는 토착 원주민들의 의지, 감옥·폭탄·굶주림에 굴하지 않는 그들의 용기로 인해 정착자 식민 지배 프로젝트는 악화돼 왔다.

파” 정당을 이끌었던 다비드 하코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대인 사회주의 문제를 놓고 내 친구들과 싸워야 했다.

“나는 노동조합에서 아랍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옹호해야 했고, 아랍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하고, 아랍인이 재배한 토마토에 등유를 들이붓고, ‘유대 민족 기금’이 부재지주들에게서 땅을 사들이고 농민들을 땅에서 내쫓는 것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야 했다.”

이들도 노동자-사장 간의 투쟁을 운운했지만 그 투쟁은 통상적인 것과 사뭇 달랐다. 그 투쟁은 식민지 전리품의 분배를 둘러싼 것이었고, 따라서 계속해서 전리품을 얻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방하고 강탈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 노동당 시온주의자는 아랍인들에게서 강탈한 지역에서 군사 기지 구실을 하는 자영 농장 키부츠들을 설립했다.

하가나

역시 히스타드루트가 지휘했던 시온주의 무장 민병대 하가나는 강탈하고 들어선 정착자들을 지켜주는 구실을 했다. 나아가 하가나는 1947년과 1948년에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대부분 지역에서 자행한 인종 청소에서 중심적 구실을 했다. 당시 최대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쫓겨났다.

이스라엘은 알제리와 다르다. 알제리에서 알제리 저항군은 프랑스 정착자들에 맞서 싸워 그들을 유럽 본토로 되돌려 보낼 수 있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정착자들에 대해 알제리와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 정착자들은 본국에서 식민지로 파견한 요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착자 식민주의는 일방적 과정이 아닐뿐더러 한 번의 사건으로 완결되지도 않는다. 토착 원주민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마련이고 설령 그러기까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배제되고 버려지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의지, 감옥·폭탄·굶주림에 굴하지 않는 그들의 용기로 인해 정착자 식민 지배 프로젝트는 악화돼 왔다.

이는 시온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 시온주의자들이 기대했던 바는 벤투리온의 말로 자주 인용되지만 그가 실제로 말한 것 같지는 않은 다음 문구에 잘 드러난다. “늙은이들은 죽고 젊은이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 난민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자신들의 권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1949년 당시 인구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16만 명의 대규모 팔레스타인인 소수 집단이 새 이스라엘 국가 안에 살아남았다.

이스라엘의 확장 정책은 이 문제를 더 키웠다. 1949년 요르단의 압둘라 1세 왕이 동의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몇몇 아랍 마을을 병합하면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국가에 편입됐다. 그 다음 1967년 전쟁이 벌어졌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살던 팔레스타인인 약 100만 명 가운데 28만 명에서 38만 명이 이스라엘의 폭력에 의해 살던 집을 떠나야 했다. 나머지 70만 명은 점령지의 주민으로 남았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제거하기는커녕 흡수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끔찍한 딜레마를 낳았다. 그토록 원했던 승리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와 불가피하게 더 많이 충돌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 “해결책”은 정착자들을 앞세운 서안지구 침략과 같은 점령 계획을 더 많이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이은 잔학 행위와 추방으로는 저항을 꺾지 못했다.

딜레마를 벗어날 또 다른 방법은 피억압 주민 중에서 협력자들을 모집해 팔레스타인인들을 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효과가 없었다.

오늘날 서안지구의 하급 관리자 구실을 하는 — 이스라엘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한에서만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다 — 팔레스타인 당국(PA)은 불신과 모욕의 대상이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범죄가 낳은 결과들에서 벗어나려 시도한 모든 것이



난민 귀환권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던 집의 열쇠를 간직하고 있다

아파트헤이트 국가를 없애야 할 더 큰 이유가 돼 돌아온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역사학자 라시드 할리디는 이렇게 썼다.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대체하고 그곳의 아랍 주민 대부분을 몰아내면서 시온주의의 꿈이 실현된 것 같았다.

“인종 청소로 엄청난 인구학적 변화가 생겼고 모든 ‘부재’ 아랍인의 땅이 무단 점유될 수 있었다.

“시온주의자들이 바라고 기대한 것은 난민들이 홀연히 사라지고, 이 땅이 천 년 넘는 기간 동안 아랍인이 다수인 나라였다는 기억까지 지워지리라는 것이었다. 골다 메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팔레스타인인 같은 것은 없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2018년 할리디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와 살인적인 보안 기관, 이스라엘 민족주의라는 공격적 위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러 모로 실패한 식민 정착 프로젝트였다.

“요르단 강에서 지중해까지 들어선 나라, 1967년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점령과 식민지화로 통합된 나라 전체 인구의 최소 절반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인이다. 그리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들은 잠자코 있지 않는다.”

저항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인종학살은 말살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속히 승리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제압한다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꿈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으로 인해 또다

시 산산조각났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제2의 나크바를 거부하고 그들의 조부모에게 했던 식으로 자신들을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몰아 내려는 시도에 맞서 들고 일어났다.

이스라엘은 수만 명을 죽였고 더 많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악랄한 계획은 장차 일어날 저항의 씨앗을 뿌렸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수억 명이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하게 됐고, 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투쟁을 영웅적으로 대표한다고 여긴다.

정착자 식민주주의의 토대에 내재하는 이런 취약성 때문에 저항 운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난다.

정착자 식민주주의라는 이스라엘의 토대를 이해한다면, 비록 이스라엘이 정착자 식민주주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

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단편적 개혁으로는 해방을 이룰 수 없고 “두 국가” 방안은 더더욱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공존을 거부하는] 유일 국가라는 전제 위에 구상되고 또 건국됐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런 유일 국가로 남으려 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두 국가라는 그들의 환상을 퍼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확실히 보여 준 것은, 단지 이스라엘 국가의 75년과, 100년이 넘는 시온주의 식민 동맹이 낳은 증상들만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정한 문제는 그런 증상을 낳은 원인, 즉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다.

출처 Charlie Kimber, 'The crisis of Israeli settler colonialism' (2024. 3. 10) / 번역 김재현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12

여성과 이슬람

이 기사는 3월 20일 같은 제목으로 노동자연대TV가 연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탈라트 아흐메드**(아래 사진)가 한 발제와 정리 발언을 글로 옮긴 것이다. 인도계 영국인 마르크스주의자인 탈라트 아흐메드는 에든버러대학교 남아시아역사 부교수이자 '인종차별에 맞서자' 스코틀랜드지부 소집자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다.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



오늘의 주제 '여성과 이슬람'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은 순종적이고, 이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집 안에 갇혀 살고, 베일 착용을 강요당하는 신세라는 담론이 팽배합니다.

무슬림 여성에 대한 서구의 편견

영국에서는 이슬람이 여성차별적 종교이고 여성을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는 무슬림이 서구 사회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무슬림 남성 캠페들이 백인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독일의 극우·파시스트들은 독일로 온 아랍계·튀르키예계 무슬림 남성들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할 것이라면서 무슬림 이민자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몇몇 유럽 국가들은 여성의 베일 착용을 금지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부상하자 서구 언론들은 이를 '무슬림이 유럽을 정복하려 한다'는 식의 이슬람 혐오적 악선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영국 보수당 정치인들은 버밍엄, 이스트런던, 브래드퍼드 같은 [이민자가 많거나 비교적 낙후한] 영국 도시들이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백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영국에는 무슬림 여성인 유명 인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컨대 BBC TV·라디오 뉴스에는 무슬림 여성 앵

커들도 있습니다. '베이크 오프'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벵골 지방 출신의 한 무슬림 여성은 일약 전국적 스타가 됐습니다. 유명 코미디언 중에도 무슬림 여성이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이 집 안에 갇혀 살고 베일 착용을 강요당하는 신세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슬람이 특별히 후진적이고 여성차별적이라는 주장과 담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이슬람 발생 때부터 그 종교와 문화에 내재돼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여러 아내를 둔 것을 두고 무함마드가 여성차별적이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여러 아내를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아라비아반도에는 아랍인과 비아랍인, 그리스도교, 토착 종교, 유대교를 불문하고 모두 일부다처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일부다처제는 이슬람이 창시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전근대의 많은 왕실들도 일부다처제였습니다. 고대 중국·일본·한반도,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고대 아일랜드, 고대 아이슬란드도 모두 그랬습니다.



무슬림 여성들이 집 안에 갇혀 지내는 수동적 존재라는 생각은 편견일 뿐이다. 영국의 이슬람혐오 반대 집회에 참가한 무슬림 여성들

연하남 무함마드에 청혼한 하디자

오히려 초기 이슬람 역사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슬람 개종자는 하디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디자는 무함마드의 첫째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먼저 청혼한 쪽은 하디자였습니다. 이때가 서기 595년입니다. 당시는 개화된 시대가 결코 아니었죠. 오늘날에도 여성이 먼저 청혼하는 사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디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하디자는 매우 부유한 여성이었고, 무함마드를 만나기 전에도 두 차례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사별했습니다.

40세가 된 하디자는 자신의 상단(대상(隊商), 캐러밴)을 이끌 관리자로 25세의 무함마드를 고용했습니다. 인망 있고 믿음직하기로 유명했던 무함마드는 하디자의 상단 교역에서 굉장한 수완을 발휘했고, 상단의 수익을 곱절로 늘렸습니다. 이에 매우 흡족한 하디자는 무함마드에게 청혼했고 무함마드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오늘날 꽤 연하의 남성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하디자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메카의 유력한 부족 가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디자의 아버지는 부유한 거상이었습니다. "전근대 자본가"였다고 할 수 있죠. 하디자는 아버지의 재력과 사업 수완을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디자가 사회적 지위와 재력 덕분에 먼저 청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 여성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슬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를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전근대 세계 어느 곳이든 결혼이라는 것은 권력층 가문 사이의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즉, 결혼은 다른 가문과 정치적 동맹을 맺는 수단이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1509~1547년 재위)는 왕비가 6명 있었고, 모두 지배계급 가문 소속이었습니다. 농노 출신은 왕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라비아반도에서 무함마드는 하디자와의 결혼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연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결혼은 당시 아랍 세계와 비아랍 세계 모두에서 행해진 관습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Bookmarks



프랑스의 하잡·부르키니 착용 금지는 무슬림 여성이 복장을 선택할 자유를 억압하는 인종차별적 조처다. 부르키니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프랑스 경찰

사회 변동과 이슬람, 여성의 지위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는 일정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여성이 결혼 상대를 정하는 데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슬람이 최대 네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남성에게 허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네 아내를 모두 먹여 살릴 수 있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율법은 결혼을 남녀 사이의 계약, 또는 남성 대 여성의 보호자 사이의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은 결혼 지참금 제도라는 것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신부 측 가족이 신랑에게 지참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초기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신랑이 신부에게 직접 지참금을 줘야 했습니다.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성은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결혼한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여성의 이혼권도 인정합니다. 남성의 이혼권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의 이혼권 자체는 인정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다른 유일신교 사회나 토착 종교 사회에 견주면 진일보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사회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점들은 여성의 지위가 계급 사회에 의해, 또 그 사회와 기존 전통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7세기 아라비아반도는 대상(캐러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라비아반도의 상인들은 사막을 오가며 '비옥한 초승달 지대'나일강, 티그리스강, 페르시아만을 잇는 농업 지대와 지중해 지역을 잇는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카, 메디나 같은 도시들이 교역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회는 심각한 모순에 휩싸인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부족 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법 집행이 굉장히 자의적이었습니다. 사회·경제 권력자들이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뚜렷하고 엄격한 법률 같은 게 없었죠.

개인들은 때때로 벼락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삼시간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복지 국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사회는 대부업자들과 상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함마드는 기존 사상들을 종합했습니다. 다신교가 아닌 유일신교를 받아들였고, 내키는 대로 베푸는 자비를 체계적인 자선으로 대

체했습니다. [구빈 활동에 쓰도록] '자카트'라는 세금을 걷었죠. 또, 복수는 신이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사적 복수를 금지했습니다.

이슬람이 태동할 무렵 아라비아반도는 비잔틴 제국과 사산 제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두 제국의 붕괴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파편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존 질서의 혼란과 붕괴가 뒤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함마드는 자신의 사상과 설교를 통해 옛 사상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돈에 빠진 세계에 모종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슬람 이전의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자신의 운명을 내맡겨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여성은 원치 않는 상대와도 결혼해야 했습니다. 형편이 나빠 많은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없는 가족들은 여자 신생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남성은 언제든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버려진 부인은 먹고살 길이 막막한 처지가 됐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함마드의 가르침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모종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사회가 완벽한 사회였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슬람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종교 사상과 교리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는 데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계급 분단을 봐야 합니다.

무함마드의 가르침은 상인들과 부족 지도자들 같은 부유한 계급의 이해관계에 부합했습니다. 그들도 변명을 누리려면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교리를 통해 가정의 안정, 가문 사이의 권리와 의무, 재산의 보호 등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유일신 아래 모든 무슬림이 평등하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하층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초기에 부족 지도자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동안, 평등을 갈구한 노예 출신자들도 기꺼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진정으로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종교적 평등주의 사상]이 이데올로기였던 것이죠.

이런 점이 중요한 이유는 종교 사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결국 사회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 10면으로 이어짐

여성과 이슬람을 볼 때는
역사적 변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봐야 한다

포럼

마르크스주의와 팔레스타인

4월 7일(일)
12:00-17:00

장소: 성동청소년센터
1층 무지개극장
(왕십리역 3번 출구 도보 5분)

참가비 **12,000원**(하루)

통역
영어와 아랍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시간표 참고)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 wsorg@ws.or.kr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이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례 없이 강경하게 팔레스타인인들을 말살하려 들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면서도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일까요, 모순과 위기의 반영일까요?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망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대 운동에 주는 함의를 토론하려 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염원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정치의 극우화와 인종학살 로드맵
발제 **박이랑** 중동 전문가 <미들이스트 솔리대리티> 공동 편집자

2000년대 이후 중동 질서의 변화
발제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
발제 **이원웅** <노동자 연대> 기자

▶ 9면에서 이어짐

계급에 따라 천차만별인 무슬림 여성의 삶

오늘날 무슬림 여성은 흔히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무슬림 여성이 사는 방식은 극도로 다양합니다.

예컨대 히잡의 사례를 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지에서는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합니다. 런던과 에든버러에도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이 있죠.

하지만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무슬림 여성도 많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인 나라들, 예컨대 저희 부모님이 살던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히잡이 아니라 사리와 살와르카미즈를 입습니다.

히잡은 무함마드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베일 착용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높은 신분의 여성이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베일을 착용한 것이죠. 이런 관습은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고대 유대인 공동체, 고대 아시리아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건 말건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니다. 가난한 여성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됐으니까요.

요컨대 이슬람은 기존 사회의 관습을 차용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다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다수가 사는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는 남녀 간 결혼의 99.9퍼센트가 일부일처 결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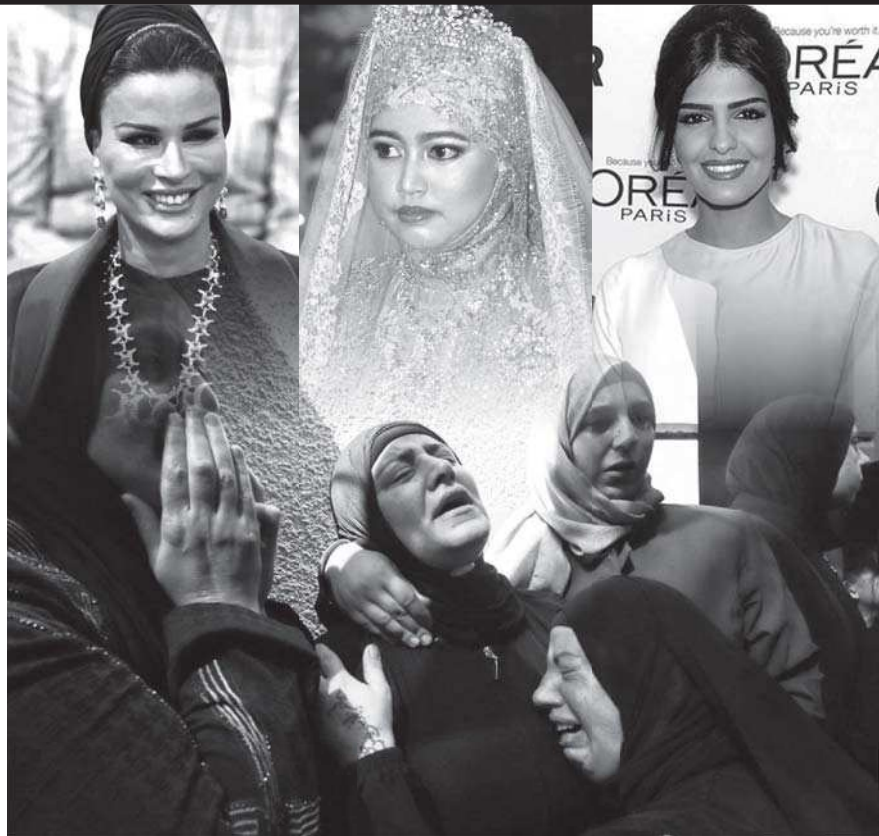
이렇듯 무슬림들이 사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그저 그 구성원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점은 무슬림 여성도 무슬림 사회와 마찬가지로 계급과 계급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보수당 의원이자 일대(一代) 귀족인 사이드 바르시라는 무슬림 여성이 있습니다. 크리켓 선수 출신이자 전 파키스탄 총리 임란 칸의 전 부인인 제마이마 칸이라는 무슬림 여성도 있습니다.

이 무슬림 여성들은 런던의 에지웨어 로드, 벨그라비아, 사우스켄싱턴 같은 부촌에 삽니다. 미용실에서 한 번 머리를 하고 매니큐어를 칠하는 데 2000파운드(약 350만 원)씩 쓰는 동네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값비싼 대저택에 살면서 보모, 요리사, 청소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경험과 계급 이해관계



단일한 '이슬람 여성의 경험' 같은 것은 없다. 위: 카타르 국왕모, 브루나이의 하피자 공주, 사우디 공주였던 아미르 알타일. 아래: 이스라엘에 의해 가족을 잃은 팔레스타인 여성들

는 허름한 집에 사는 수많은 무슬림 여성들과 사뭇 다릅니다. 단지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침을 맞고 욕설을 듣고 괴롭힘 당하는 젊은 무슬림 여성들 과도 사뭇 다르죠. 출입국 단속 공무원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민자·난민 무슬림 여성들과도 사뭇 다릅니다.

이런 계급 이해관계와 계급 분단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일한 '무슬림 여성의 경험' 같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이슬람을 볼 때는 역사적 변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째, 무슬림 여성을 동질적 집단으로 뭉뚱그리게 됩니다. 둘째, 자본주의와 계급 사회가 아니라 이슬람이 문제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종교 사상은 계급 사회라는 사회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유대교든 힌두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여성차별적이라 해도 그것이 이슬람 고유의 특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성 차별과 불평등의 근원은 계급 사회와 자본주의입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그 근원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발제자의 토론 정리

유익한 질문과 토론 감사합니다. 질문이 워낙 많아서 모두 답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방 지도자들의 위선에 맞서기

먼저, 사회주의자이거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서방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말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서방 지도자들이 “무슬림 남성이 무슬림 여성과 백인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를 위협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반대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성 착취 무슬림 집단’에 대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슬림 남성 패거리가 십대 백인 여성을 그루밍해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국 언론들은 훨씬 악랄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깁니다. 예컨대 유명 TV 스타 지미 새빌을 비롯한 1970~80년대의 TV·라디오 저명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소년·소녀들을 성 착취한 사건은 결코 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폭력이 주되게 무슬림 남성의 행위인 양 묘사하죠.

그런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은, 대부분 사회에서 무슬림은 인종차별의 대상이기 때문에 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런던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무슬림 대상 범죄 건수는 지난 10년 새 174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히잡 착용뿐 아니라

해변가와 휴양지에서 부르키니(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수영복)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몇 년 전에는 프랑스 경찰이 총을 들고 해변가에 나타나 무슬림 여성에게 부르키니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 사회가 히잡 착용을 강요한다는 서방의 비난에 대해, 우리는 서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적하며 그런 비난의 위선을 들춰내야 합니다.

서구에서 히잡 착용이 늘어나는 이유

한 시청자가 지적했듯이, 세계 어떤 곳에서는 무슬림 여성이 히잡 착용을 강요당하지만, 무슬림 여성이 히잡 착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그에 못지 않게 많습니다.

제가 십대이던 1970년대 런던에서는 아시아계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거의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쯤 지난 때 런던에서는 많은 아시아계·아랍계 젊은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노는 물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히잡 착용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슬림을 상징하는 것이 모두 공격받는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름이 무슬림식이면 그것도 놀림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인데요, 오늘날 영국에서는 많은 무슬림이 그 기간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적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금식에 동참하지 않았죠.

오늘날 무슬림들은 이슬람 사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 어린이가 꾸란을 읽기 위해 아랍어를 배운다고 하면 뒤편어진 아이 취급을 당합니다.

이처럼 서구 사회에서는 무슬림임을 나타내는 모든 징표가 끊임없이 인종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젊은 무슬림 여성들은 저항과 자긍심의 표현으로서 히잡을 착용합니다.

이런 현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안타깝게도 좌파 들조차도 인종차별과 제국주의가 아니라 이슬람이 문제라고 끈질기게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급기야 파시스트 마린 르펜이 떠올라 다음 대선의 유력한 주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르펜이 당선되면 노골적인 파시스트가 프랑스 대통령이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슬람 페미니즘과 여성 해방

이슬람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성 차별의 근원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 이슬람 페미니즘은 이슬람 혐오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서구의 온갖 거짓말과 편견에 맞서는 시도죠.

이슬람이 여성의 이혼권을 인정하고, 원치 않는 상대와 결혼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이슬람은 가톨릭 교회와 달리 피임과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 충실하면 여성 해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무슬림 사회도 계급 분단을 토대로 구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무슬림 여성인 베나지르 부토가 총리가 됐을 때 [1988~1990년과 1993~1996년], 부토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무슬림인 광범한 파키스탄 여성들의 삶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부토는 공식 석상에서 히잡을 착용하고 꾸란의 첫 장인 개경장을 암송하며 회의를 시작하곤 했지만, 파키스탄 기업주들과 나란히 앉아 파키스탄 기업의 이윤을 늘릴 정책들에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무슬림 나라인 방글라데시에도 여성 총리가 있습니다. 그 녀[칼레다 지아, 1991~1996년과 2001~2006년 재임]는 선거 운동에서 이슬람이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 총리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 동안 혹사



무슬림 여성들은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당하는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 총리가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보모와 청소부로 고용할 수 있는 처지인 반면, 이 여성 노동자들은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매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 페미니즘이 여성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내부의 이질성

한 시청자는 이슬람이 유일신교인데도 무슬림의 종교 생활이 지극히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살라프파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브파는 금욕적이고 사회적으로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수피즘이라는 전통도 있습니다. 수피즘에는 성인들과 이들을 기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제단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배를 하러 다녀갑니다. 수피즘은 노래나 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알레비파는 음주를 허용합니다. 가족에 대한 관념은 보수적이지만요.

1947년 인도가 독립할 때 파키스탄은 인도의 무슬림이 이주해 와서 살 나

라는 명분으로 건국됐는데, 당시 이를 주도한 세력의 하나가 아흐마디아파였습니다. 그런데 1960~70년대를 거치며 아흐마디아파는 이단으로 규정됐죠.

이는 이슬람 내의 이질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이 무슬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혐오와 차별에 맞선 공동전선

마지막으로, 저항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 혐오에 대한 영국 좌파들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국에도 이슬람이 보수적이고 여성차별적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좌파가 있습니다.

TV의 많은 자유주의적 논평가들이 이슬람 사회가 후진적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무슬림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차별받는 여성이라고 줄곧 묘사하죠.

그런데 그 똑같은 논평가들이 서방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 폭격을 옹호합니다. 서방이 무슬림 여성을 구원할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서방은 그곳을 폭격해 무슬림 여성들을 살해하고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난민이 돼 유럽으로 들어오려 하면, 그 논평가들은 “너무 많은 난민을 감당할 수는 없다”거나 “이 난민들은 이슬람 종교와 문화 때문에 영국 문화에 좀처럼 동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좌파 일부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인종차별이 핵심 문 제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 보수당 정부는 난민들을 호텔이나 병영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텔”이라 함은 무슨 5성급 호텔이 아니라 낡고 허름하고 곰팡이 투성이인 시설을 뜻합니다. 현재 이런 곳들은 인종차별적 극우 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난민들을 두고 “저들은 난민이 아니다. 저 젊은 남성들은 우리의 딸들과 아내들을 겁탈하러 온 짐승들이다”는 식의 공격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영국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노동조합 활동가들, 지역 사회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대개 무슬림 나라 출신인 난민들의 권리를 방어하는 광범한 공동전선을 구축했고,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저희는 ‘인종차별에 맞서자’라는 광범한 인종차별 반대 공동전선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는 몇몇 노동당 의원들이 포함돼 있고, 혁명가들도 있고, 아나키스트들, 지역사회 활동가들,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슬람이 아니라 인종차별이 문제이고, 이에 맞서려면 자본주의와도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을 이용해 우리 편을 분열시키려 하는 지배자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토론 시간에 한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분은 팔레스타인에서 투쟁이 단결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옹계 지적했습니다.

투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단결시킬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쟁 속에서 우리는 여성과 남성, 유색인종과 백인, 이민자·난민과 정주민, 무슬림과 비 무슬림을 단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결해서 우리 편을 지배하는 자들에 맞서 공동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통역 천경록

기획 연재 팔레스타인, 저항, 혁명 — 해방을 향한 투쟁 ⑧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 ① 이스라엘 건국, 팔레스타인의 재앙
- ②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시작되다
- ③ 오슬로 협정 이후: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 ④ 가자지구: 하마스의 부상
- ⑤ 제국주의의 경비견 이스라엘
- ⑥ 아랍 세계의 혁명과 반혁명
- ⑦ BDS 운동의 부상과 시온주의 측의 반격
- ⑧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오슬로 협정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과 나란히 공존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한다는 발상은 환상임이 명백하다.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하에서 오슬로 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팔레스타인 “국가”는 전혀 국가라고 할 수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 이런 기만책이 뜻하는 바에 역겨움을 느낀, 시온주의와 결별한 극소수 지도자의 한 명인 메론 벤베니스티는 그런 “국가”의 주권이 어떤 모습 일지를 이렇게 내다봤다.

“그 주권은 주택 건물 꼭대기에서 못자리 바닥까지의 공간으로 제한될 것이다. 영공과 수자원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배할 것이다.

“헬리콥터 순찰, 방송, 수도, 전기, 거주자 명부, 신분증 발급, 통행권 발급 모두 이스라엘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머리도 없고, 두 발도 없고, 장래도 없고, 발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기괴한 팔레스타인 국가가 마치 균형과 평등이라는 목표, 즉 ‘두 민족을 위한 두 개의 국가’라는 오랜 구호에 담긴 이상을 실현한 것인양 제시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오슬로 협정이 팔레스타인인 난민의 귀환권을 부분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은 국제 연대 운동에 동력을 제공한다 2017년 트럼프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에 항의하는 현지 팔레스타인인들

보장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유하게 하고, 서안·가자지구의 이스라엘인 정착촌을 철수시켜서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 냈더라면, 이것은 정의가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오’일 수밖에 없다. 그런 방안은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된 역사적 범죄, 즉 1948년에 벌어진 팔레스타인인 85만 명에 대한 인종 청소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그런 방안은 미국 제국주의가 막강하게 무장시킨 인종차별적 식민 국가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런 국가는 팔레스타인인들뿐 아니라 중동 전체에 상시적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요 팔레스타인인 활동가들은 유대계 이스라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단일 세속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BDS 운동의 창시자 오마르 바르구티는 이렇게 주장했다.

“식민 정착자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민주주의 국가 모델에 따라 식민 지배와 차별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함께 매진할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억압받

아 온 선주민이 억압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제안이다.”

그런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무장 투쟁만으로 이를 쟁취할 가망은 거의 없다.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인 저항 세력들의 무장 투쟁은 용맹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온주의자들의 전쟁 기구를 꺾을 수 없다. 아랍 정권들은 중동 지역 제국주의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로, 이스라엘군에 맞설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자기 고향에서 억압받는 소수자 신세가 됐다. 팔레스타인인 난민들이 귀환하게 되면 1인 1표제에 따른 국민투표 등의 민주적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결권도 핵심 문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외교·군사적 쟁투에 이용당하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으로 자기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주체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기를 들 권리, 자신들을 대표해 투쟁하고 발언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대중 시위, 대중적 불복종 운동, 파업과 같은 민주적 전통을 부활시킨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스라엘의 계획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운동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잔혹하게 무력으로 강탈한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과 서안·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 역사적 팔레스

타인 땅 바깥에 사는 팔레스타인 동포들의 투쟁을 긴밀하게 연결시킨다.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고, 정착자들로 하여금 토지를 강탈하게 하고, 서안지구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는 목적은 모두 아래로부터 항쟁의 분출을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노력은 오랫동안 거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항쟁의 분출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인들 자신의 투쟁만으로는, 그것이 국제 연대 운동의 성장과 결합된다 해도 정의를 쟁취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은 중동 제국주의 시스템의 주춧돌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랍 정권들에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은 아랍 정권들에 맞선 독립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을 건설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

중동의 활동가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이는 2011년 아랍 혁명 이전의 시기에 중동의 활동가들이 함께 겪은 경험의 일부다.

하지만 2011년 혁명 물결은 분명한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일터와 빈민가에서 뿌리가 얇았다는 약점이 있었다.

아랍의 혁명가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사진 출처: 기가에브라힘

2011년 혁명기 이집트에서 '나크바의 날'을 맞아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연대를 외치는 이집트인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것을 아랍 세계의 독립적인 노동자 운동의 핵심 요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운동의 재부상은 이스라엘 노동자들에게 새롭고 다른 종류의 물음을 제기할 것이다.

2011년에 아랍 세계에서 혁명이 분출해 이스라엘 내에서도 대규모 사회 운동을 자극했을 때, 유대계 이스라엘인들 내의 정치적·사회적 모순도 훔칠 드러났다.

이 시위 자체로는 유대계 이스라엘인 노동자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시온주의의 인종차별적 정착자 이데올로기를 깨뜨릴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는,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었던 혁명적 분출조차 이스라엘 사회 내 계급 분단선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한 국가" 방안을 달성하는 투쟁이 중동의 혁명적 재편 없이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민족 해방 투쟁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즉 독재와 식민 지배를 타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억압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는 투쟁으로 성장·전화하기를 바란다.

그런 투쟁에서는 조직 노동계급의 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들의 투쟁 방식인 파업, 대중 시위, 시민 불복종은 가장 광범하고 민주적 형태의 참여로 벌어진다. 그런 투쟁의 결

과는 밀실에서 외교관이나 군 장성들—설령 그들이 저항 운동 출신이라 해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느 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 반혁명이 중동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집트 군부 정권이 하마스를 집요하게 악마화하고 비방하는 와중에 이집트의 작업장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은 만만찮은 투쟁이다. 그럼에도 이 투쟁의 승리로 얻을 성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점령하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인 청년들 사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끈기와 용기를 믿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다.

중동 바깥에 사는 우리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 등 서방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의 공범이고 한국 정부도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편들고 있기 때문에, 서방과 친서방 나라들에서의 저항은 중요하다.

우리가 가하는 타격 하나하나가 중동 제국주의의 안정을 흔들 수 있다.

국제주의적·혁명적 사회주의 경향을 건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동의한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자.

중동 전역의 혁명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꺾으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는 그 기대와 다르게 중동 전역에서 혁명적 봉기를 분출시킬 수 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스라엘과 그 후원자들에 맞서 행진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지구에 대한 연대만 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시온주의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서방 제국주의를 편드는 자국 지도자들을 규탄도 한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미국 대통령 바이든, 영국 총리 리시 수낙 등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패배는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다 역풍을 맞아 항쟁이 촉발되는 것일 테다.

혁명은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바로 그런 일이 제1차세계대전 말 러시아와 독일에서 벌어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지배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것은, 그 지배자들이 물러서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독재자·착취자·억압자들이 벌벌 떨고 몰락하

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나라들에서 거대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성장해 노동계급의 다른 쟁점들과 연결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끝장내기를 바란다.

노동계급

그러려면 시위를 지속하고, 운동을 더 투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분노할 때이지 "진정"하거나 "점잖게 굴" 때가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은 서방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후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폭격 중단하라"는 뜻으로 "휴전"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더 많은 각급 단체들이 더 투쟁적으로 연대 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학살범들과 이집트·요르단의 독재자들, 서방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자고 외쳐야 한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6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서평 | 《교육개혁은 없다》

오랜 교육 운동가의 따끔한 일침 “교육개혁은 사회개혁과 함께 가야”

한국 교육은 학생들을 가장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수십 년 동안 교육개혁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개혁 요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개혁 운동의 기세가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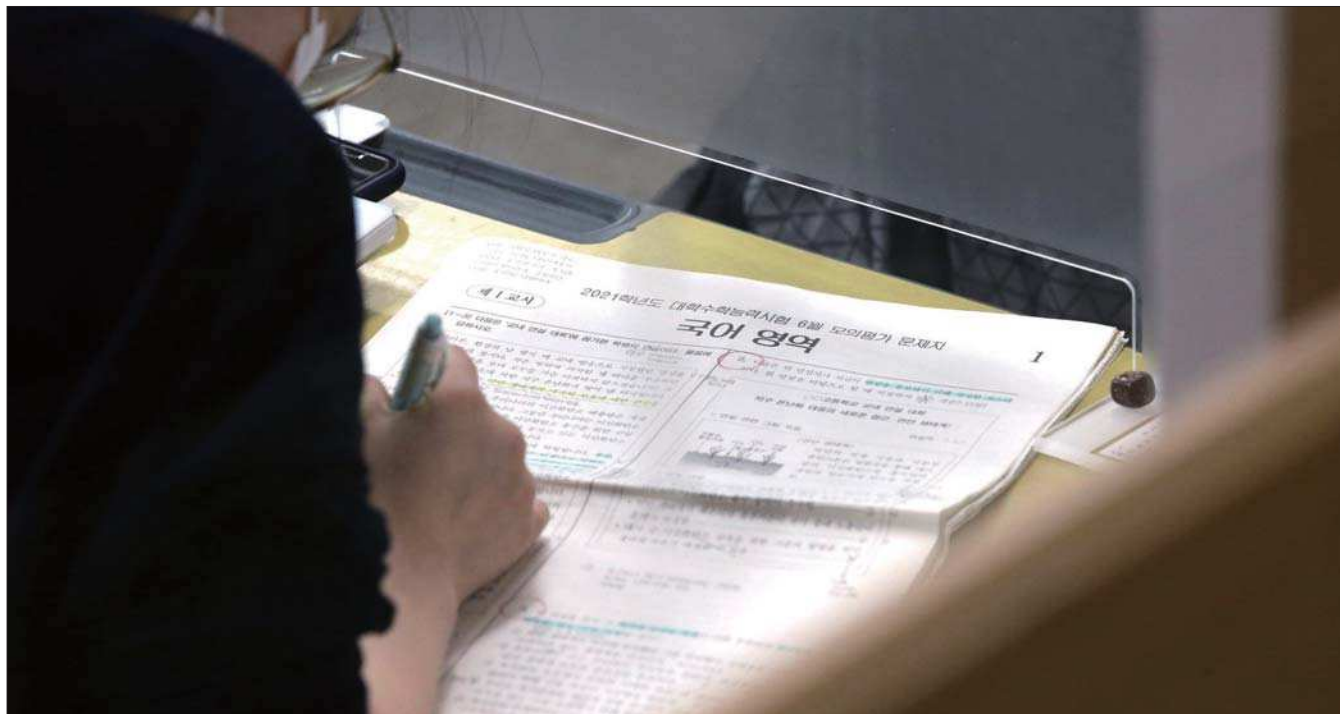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오랫동안 교육개혁 운동에 동참해 온 박정훈 교사가 쓴 책 《교육개혁은 없다》(전2권)는 기존의 교육개혁 운동 세력에게 만만찮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사회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그래서 ‘교육개혁은 없다’는 도발적인 책 제목을 붙인 듯하다). 즉, “사회와 교육을 망쳐놓은 국민 의힘, 그에 맞서 바로잡을 의지와 결기가 없는 민주당, 이들에게 매달려 입시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 달라고 청원하는 식의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개혁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기존의 교육개혁 운동에 대해 두 가지 합당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우선, 저자는 기존 교육개혁 운동이 입시나 대학서열체제 문제에만 협소하게 집중해 왔다고 본다. 특히 입시 문제에서 얻어 낼 수 있는 조그마한 ‘개혁’에만 매달리다 불필요한 타협을 해 왔다고 평가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조국 사태는 부유층·권력층이 째짜미로 자녀들의 스펙을 서로 만들어 주며, ‘학생부종합전형’(학



이런저런 식으로 입시를 개혁하는 데 매달리기보다 거대한 투쟁으로 사회개혁을 쟁취하는 과정에서만 교육개혁도 성취할 수 있다

종)을 명문대 입학 통로로 이용해 왔다는 점을 드러냈다. 우파는 데마고기적으로 이를 비난하며 수능과 정시 강화를 외쳤고, 결국 문재인 정부도 이에 굴복해 정시 강화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상당수 교육개혁 운동 세력은 정시 강화를 반대하며 학종을 옹호했다. 학종이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명문대 입학 기회를 줄 수 있는 진보적 방안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생각에 단호히 반대하며 책의 꽤 긴 분량을 학종 비판에 할애하고 있다. 학종은 미국에서 부유층이 명문대 입학 통로로 이용하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변형된 것으로, 학종의 수천 가지 입시 전형은 평범한 학생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한 입학 방

식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날카롭게 파헤쳐 보여 준다.

저자가 학종 대신 수능이나 내신을 대안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자는 입시 제도를 이리저리 바꾸는데 집중하는 것은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만 바꾸는 것일 뿐이라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저자가 ‘사회개혁과 함께 가는 교육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개혁을 이룰 주체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저자는 기존 교육개혁 운동 세력이 이 문제에서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청원하는 식의 방법에 매달렸다고 비판한다.

특히 저자는 ‘촛불 정부’를 표방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개혁 열망을 배신했는지 여러 사례를 들어 통

렬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저자는 대안으로 “1987년 6월 항쟁과 같이 헬조선을 마감할 국민적 요구가 거대한 항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지배계급이 냉혹한 “학벌전쟁 사회”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손쉽게 물려주려고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자가 “거족적 항쟁”을 통해서만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거족적 항쟁”

이처럼 저자가 만만찮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저자의 분석과 대안에도

▶ 16면에서 이어짐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 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찰 내 전산망(디넷)에 저장해 해 놓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김건희가 관여했음직한 고발 사주 의혹은 무마하면서 그것을 보도한 이진동 기자를 수사한 것 자체가 부당한 보복이자(폭로 보도 시점이 대선 전) 언론 탄압인데, 한술 더떠 수사권을 남용해 사찰 정보를 집적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은 당시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검찰의 사찰 정보를 집중해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이 사실을 3월 21일 단독 보도한 <뉴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성장이 사회개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몇 가지 약점과 모순이 있어 보인다.

우선, 저자는 사회개혁을 위한 거대한 투쟁을 강조하지만, 또한 그 힘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에 기반한 진보정당의 강화로 귀결돼야 사회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주장은 (불만족스러워 하면서도) 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분명 나은 대안이다. 실제로 거대한 투쟁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성장에 일조할 공산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는 거대한 투쟁이 제공한 기회를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약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자는 “촛불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요구가 불평등을 해소하

고 사회를 개혁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것이 필연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저자도 인정하듯이 민주당은 이 투쟁에 뒤늦게 참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회 연단에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주도권이 없었다. 촛불 항쟁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철도 파업을 종료시키고 그 초점을 국회에서의 탄핵으로 이동시켜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 준 것은 바로 철도노조 지도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한편, 저자는 입시와 대학서열체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불필요한 타협을 해

스버스)는 이런 사례가 더 많고, 체계적으로 수집돼 재판에도 활용됐다고 보도했다.

각각의 초점은 달라도 검찰·경찰·국정원이 모두 정부 비판 활동 사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건에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국정원의 윤석열 퇴진 운동 사찰 건에는 다들 침묵하고 있다.(민주노총과 진보당은 각각 관련 논평 하

온 운동 세력을 비판하는 데서 더 나아가, 대학서열체제에서 비롯하는 학벌 경쟁이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중 하나라는 점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 즉, 한국에서 유독 심각한 입시 경쟁은 학벌 경쟁이 아니라 특히 격심한 노동시장 경쟁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학서열

저자의 이런 관점은 핀란드·독일·프랑스 등의 교육 체제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며, 한국에서 대학서열체제를 완전히 타파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제한을 두는 데서 비롯하는 듯하다. 핀란드나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 대학 진학 학생이 결정되고, 프랑스에서도 그랑제콜이라는 명문 대학이 있으니 말이다.(저자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하는 것도 유럽 선진국을 대안으로 보는 것과 관련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자기 제한은 저자가 제시하는 한국 교육의 개혁 과제도 심각하게 훼손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외교·자사고뿐 아니라 많은 진보 세력이 침묵하는 과학고와 사립초등학교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핀란드와 독일을 본 따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에게는 직업 교육을 강화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도 인정하듯이 “[핀란드에서] 직업고에 대해 ‘경멸적 편견’도 존재”하고, “독일의 김나지움(인문계)으로 진학하는 학생 중 부모가 김나지움 출신인 경우는 60퍼센트, 부모가 하우

프트슐레(직업계) 출신인 경우는 7퍼센트”일 정도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요컨대 저자는 한국의 특목고·자사고, 영국 귀족 학교, 미국 사립학교 형태로 학벌이 대물림 되는 것은 비판하면서도, 냉혹하게 초등학생 때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해 노동계급 출신 학생들을 좌절시키는 핀란드·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긍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영국 ‘옥스브리지’나 프랑스 그랑제콜을 졸업한 지배자들은 한국 지배자들과 다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힘든 편견을 드러낸다. 한국 교육과 지배자들의 문제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테지만, 유럽 교육과 지배자들에 대한 환상을 부추겨서도 안 된다.

유럽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교육 불평등을 별 불만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저자도 언급하듯이, 노란조끼 운동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를 위협하자 결국 마크롱은 그랑제콜 중에서 국립행정학교를 폐교하는 양보 조치를 내놓아야만 했다.

지금 전 세계가 불황으로 고통받으면서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이는 다시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때에 한국 노동자들에게 유럽식 교육 불평등 체제를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위기의 시기에는 ‘사회개혁과 함께 가는 교육개혁’을 위해서라도 ‘사회혁명과 함께하는 교육혁명’도 전망에 뒤야 하는 까닭이다.

강동훈

함께합시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 28차 집회와 행진

**이스라엘은
리파 공격 중단하라
인종 학살 멈춰라
가자 봉쇄 해제하라**

일시: 3월 30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광화문 D타워 앞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아랍어, 영어, 한국어 통역 제공



국정원의 윤석열 퇴진 집회 사찰 폭로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김문성

국가정보원이 강경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사찰한 사실이 들통났다.

3월 내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며 몰래 촬영하던 국정원 요원이 3월 22일 오전 대진연 회원들에게 붙잡혔다.

대진연은 지난 2년간 촛불행동 가맹단체로서 윤석열 퇴진 운동과 한미일 군사 공조 반대 평화 운동을 해 왔다.

국정원 요원은 신원을 묻는 대진연 회원들에게 자신을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단에 파견된 헌병이라고 밝혔으나, 국정원은 22일 오후 국정원 조사관임을 인정했다.

이 사찰 사실을 처음 폭로한 촛불행동은 국정원 요원의 휴대전화 사진과 카카오톡 보고용 방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이뤄 상시적 감시와 사찰을 진행한 사실과, 대진연 회원들뿐 아니라 촛불행동, 사회단체 회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보고한 자료가 담겨 있다.

폭로된 자료를 보건대, 국정원 요원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와 그 주최 단체인 촛불행동을 사찰하고 있었던 듯하다.

대진연 학생들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장면, 아르바이트하는 장면, 암투병 중인 시민단체 활동가가 운동하는 모습,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거동, 감시 대상자의 초등학생 자녀 등하굣길까지 사진을 찍어 보고했다.

물론 국정원 측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대북 연계 범죄 혐의가 포착된 인물에 대한 정당한 대공 '조사' 과정이었

으며, 오히려 자기네 요원이 감금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퇴진 집회의 인기 구호들, 가령 "퇴진이 (이태원 참사) 추모다" 등을 북한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비방했다.

촛불행동은 3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 공안 사건을 터트려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가자 수천 명은 집회 후 서울 신촌과 홍대입구 거리 일대를 행진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불법 사찰을 자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25일 국가수사본부에 국정원을 불법 사찰 혐의로 고발했고,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하려는 윤석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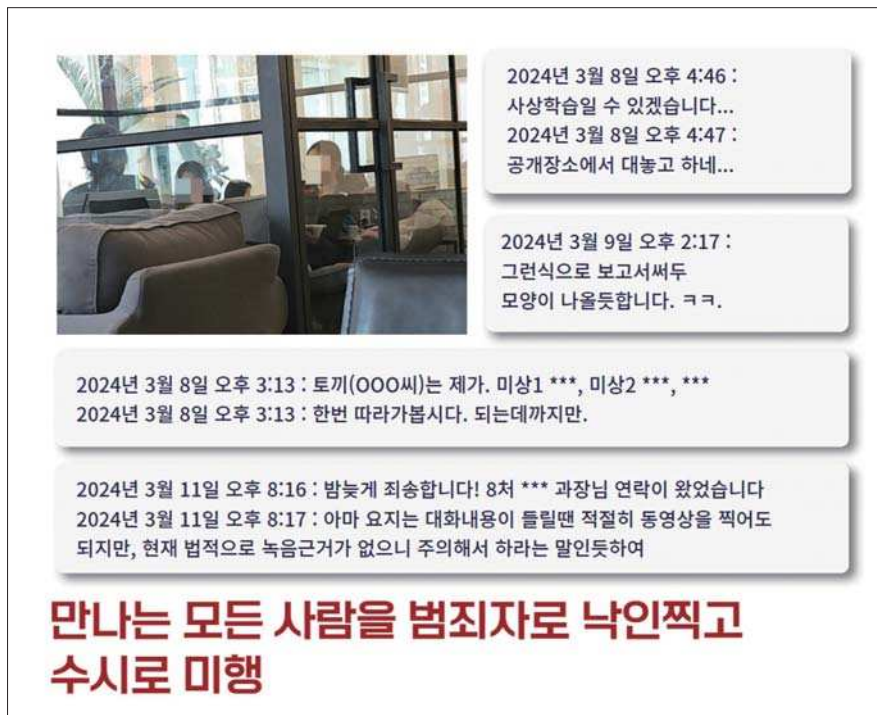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형식적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인력 파견과 수사 공조 형식으로 검찰·경찰, 방첩사·정보사 등과 함께 여전히 대공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번 건이 북한 연계 '혐의'가 있어서 "안보침해 범죄 행위를 [정당하게] 추적해 왔다"는 국정원의 해명 자체가 실은 이번 일이 수사과정임을 자인한 것이다.

경찰은 넘겨받은 대공수사권을 감당하려고 공안 수사 파트를 대형화해 국정원에서 전문 요원을 파견받았다. 올초 국정원장에 임명된 조태용은 경찰의 원안보다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제4조)에서도 북한 관련, 방첩, 형법상 내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 여전히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은 친북 좌파나 혁명적 좌파 등을 상대로 앞서 말한 방법들로 수사에 참여하며(비록 대놓고는 못해도) 필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편집팀 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민주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기만이었던 이유다. 당시 본지는



국정원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와 그 주최 단체인 촛불행동을 사찰하고 있다

이 점을 폭로하며 경고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직접 나선 미행·사찰 건이 폭로된 것은 총선 후 정치적 반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예고하는 일이자, 그 작업이 이미 시작됐음을 드러내 준다.

경제 침체에다 생필품 물가까지 다시 오르면서 대중의 불만은 지금 다시 커졌다. 총선에서 여당이 전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권 안보 강화

물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3년을 지배계급 이익의 수호에 헌신하며 보내려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억압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친 상황 때문에 윤석열은 반정부 운동, 생계비 저항, 반제국주의 운동 등을 국가 안보상의 위협(국내의 적)으로 취급하며 탄압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한동훈은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의 불만이 정치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사보다는 치안(질서 유지와 서민 단속)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해 왔다. 강력범죄수사대(옛 광역수사대)가 순찰 중심의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로 확대 개편됐다. 일선 경찰서로 분산돼 있던 정보 기능은 중앙 집중화됐다.

최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집회에도 서울경찰청 외사협력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집회를 몰래 촬영하다가 들켜서 사진을 지우는 일이 있었다.

최근 서울경찰청도 집회시위 관련 동향 파악·분석 파트와 이민자 동향 정보 관리하는 외사과를 치안정보부 산하로 통합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사찰이 외국인만 겨냥한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윤석열은 반정부 운동, 생계비 저항, 반제국주의 운동 등을 국가 안보상의 위협(국내의 적)으로 취급하며 탄압하려 할 것이다.